

다산포럼

송재소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 '장의열전(張儀列傳)'에는 재미있는 삽화가 하나 수록되어 있는데 그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다. 장석(張戩)은 월(越)나라 사람으로 초(楚)나라에 와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다. 초나라 왕이 말하기를 "장석은 월나라 사람인데 지금도 월나라를 그리워하는가?" 하였다. 신하가 아뢰기를, "대개 사람이 병이 들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법입니다. 장석이 월나라를 그리워한다면 월나라의 소리로 신음할 것이고, 월나라를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초나라의 소리로 신음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그래서 초왕이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장석은 월나라의 소리로 신음했다고 한다.

지금도 중국은 지방에 따라 방언이 다르지만, 장석이 살았던 전국시대(戰國時代)에는 월나라와 초나라의 말이 외국어처럼 달랐던 모양이다. 장석이 초나라에 와서 높은 관직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병석에서는 고국인 월나라의 말로

신음했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사람들은 고국을 잊지 못한다는 것인데, 특이한 게 여기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말'을 매개로 하여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장석에게 월나라 말은 모국어이다. 그

“모든 일이 숲으로 돌아갔다”

가 몸은 비록 초나라에 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월나라 사람이라는 사실이 유독 신음소리 즉 '말'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모국어는 그 민족의 숨결이요, 민족혼의 응결체이다. 그 민족은 모국어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한 민족의 자기동일성(自己同一性)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모국어인 것이다. 아직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중국의 '조선족'과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모르는 러시아의 '고려인'을 비교하면 모국어

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어 실력이 형편없다고 한다. 어느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쓴 글에 "모든 일이 숲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한다.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를 잘못 쓴 것이다. 또 어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춘향전'의 변 사또의 흥미를 내며 "자, 내 숙청을 들라"고 했다고 한다. 이 역시 '수청'을 잘못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다.

필자도 지난 학기에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지금은 교수가 기말고사 성적

을 컴퓨터로 입력하면 그 성적을 본 학생이 역시 컴퓨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 학생이 성적을 올려달라며 장문의 메일을 보냈는데 그 중에 "교수님, 다음엔 정말 열씨미 공부하겠습니다"라는 대목이 있었다. '열씨미'라니, 자기네를 까리 주고받는 인터넷언어가 '외국어(外語)' 수준이라는 것을 필자도 알고 있다. 그러나 교수에게 보내는 메일이라 신중을 기했을 터인데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청소년들의 '국어학

대', '국어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을 대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한자교육을 소홀히 한 탓이다. "수포로 돌아가다"의 '수포(水泡)'가 물거품이라는 뜻을 알았다면 "숲으로 돌아가다"는 식의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말을 옹기 쓰기 위해서 한자 학습은 필수적이다.

둘째는 인터넷언어의 범람이다. 아무런 규제 없이 무제한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언어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표준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셋째는 영어 광풍이다. 세상이 온통 영어에 미쳐 날뛰는 사이에 우리 국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민족 고유의 언어를 갖지 못한 나라가 많은데 우리는 훌륭한 모국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모국어를 알뜰히 갈고 닦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달 서울에서 개최된 제 18차 세계 언어학자 대회의 "인간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때 가장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선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균관대 교수·다산연구소 제6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정부, 여수엑스포 비용 '지방'에 떠넘겨서야

정부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운영비와 엑스포 타운(종사자 주거지) 조성비용 가운데 일부를 전남도와 여수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황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여수엑스포 조직위 운영예산 90억원 중 30%인 27억원과 엑스포 타운 사업예산(최고 추정치 1천750억원) 중 일부를 전남도와 여수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전남도와 여수시가 지방비 부담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내년도 조직위 예산안 심의를 전면 보류한다고 압박까지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박람회 개최와 부동산 개발의 혜택을 보는 지역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역지에 불과하다. 박람회 특별법에는 '국가가 박람회 직접 시설의 신설·개보수 등에 관해서

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고 돼 있을 뿐 지자체의 부담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확정된 '박람회 유치 기본계획'에도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에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여수엑스포는 지자체 차원의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다. 사업비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등 모든 국책사업에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지 않겠는가.

최근까지도 지방비 부담에 대한 언급이나 논의가 전혀 없었다가 새 정부들이 갑작스럽게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자의가 의심스럽다.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유치한 여수엑스포의 발목 잡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여수엑스포 지방비 부담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부터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정치권 F1대회 '적극 지원' 기대 크다

전남도의 역점사업인 'F1(포틀러 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사업 추진에 박을 받게 됐다. 정부가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책정했고 정치권도 'F1대회 지원법'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뒤늦었지만 다행스런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F1대회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20억원을 편성, 심의하고 있다. F1대회 경주장 진입로 건설을 위해 올해 10억원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면 전 항목으로 평가된다.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이 본격화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청신호가 될 것이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유선호 의원 등은 'F1대회 지원법'의 조기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인 '대회 지원법'은 F1대회 성공 개최의 핵심이다. 지원법이 제정돼야 대회 개최권료와 SOC 사업비 등 1천200여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2010년 대회 개최일까지는 불과 2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착공한 F1 경주장 건설공사는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오는 10월 건축물 공사에 들어가 2010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F1대회 지원법' 제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무산된 적이 있다. 한나라당이 F1대회 지원을 위해 당정협의를 강화하고 있다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임기 개시 2개월이 남도록 원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18대 국회의 현실까지 고려하면 낙관할 수 없다.

정치권은 'F1대회 지원법' 제정부서부터 한다. 한나라당은 적극 지원을 약속한 만큼 더 이상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도 정부의 지원과 '지원법'의 조기 제정이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정병문



현대 복지국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 시대 변화와 의식의 성장은 복지와 인권수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확대되고 있고, 삶의 질과 연관되는 다양한 욕구들에 의해 제반 사회 환경상에서의 패러다임 또한 변화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가 추구하는 목적 역시, 동일한 국민으로서 권리보장은 물론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정상화(normalization)를 통해 궁극적인 사회적 통합에 이르도록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보편적으로 개념화되어 왔던 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모든 장애인들의 간절함 염원을 담아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지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복지인권 보장의 신(新) 기원으로도 평가되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권과 주권 국민으로서의 권리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각종 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나 효과적 구제를 구체적으로 담보해 낼 수 있게 됐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장애인 복지인권뿐 아니라 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0일의 기원

혜택 관점에서의 복지가 아닌 인권을 비롯한 교육과 고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억제와 권리차원에서의 제도적 보장을 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는 의식 또는 물리적인 제반 환경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가장 애초부터 자신이 속한 사회의 모든 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장애로 인해 열등하다거나 이질된 계층으로 취급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실천할 능력이 있는 평범한 인간으로의 인식 공유 속에 진정한 의미의 참여와 평등 실현이 전제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의식성장과 함께 장애당사자들의 부단한 사회행동의 결과들은 일부지만 뜻있는 시민사회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관련 법률의 제 개정이나 제도적 정비에 앞장서는 촉매가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정되기까지 7년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입법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모든 장애인들의 간절함 염원을 담아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지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복지인권 보장의 신(新) 기원으로도 평가되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권과 주권 국민으로서의 권리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각종 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나 효과적 구제를 구체적으로 담보해 낼 수 있게 됐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장애인 복지인권뿐 아니라 차

김치 양념 재료도 원산지 표시해야

중국산 고춧가루를 쓴 다진 양념이 연간 수 만 수입돼 국내 김치시장을 휩쓸고 있다고 한다. 이 중국산 양념으로 만든 김치가 국산 김치가 되고 소비자들은 국산 김치로 알고 먹고 있다.

중국산 고춧가루의 관세율은 270%라고 한다. 하지만 고춧가루를 40%만 섞은 다진 양념은 45%의 관세만 물면 된다.

이를 이용해 고춧가루를 다진 양념으로 들여오는 것이다. 이 다진 양념에 파프리카 색소를 섞고 물을 뿌려 말리면 완전히 붉디 붉은 고춧가루처럼 변한다. 값싼 중국산 양

념이 고급 국산 고춧가루로 둔갑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주재료인 배추의 재료만 표시하면, 양념재료의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양념류인 것 같이나 고춧가루는 표시 안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중국산 양념이 활개를 치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적잖이나 고춧가루 같은 양념류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강력한 법 적용을 해서 중국산 양념이 판치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신재민·목포시 수감동



인기 있는 캐릭터, 당나귀



당나귀가 나오는 이야기는 대개 영웅하고 재미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당나귀의 외양이나 성격에 우스꽝스러운 면이 많기 때문이다.

당나귀는 마치 신이 장난으로 빚어 놓은 것 같은 외모를 지녔다. 얼굴에 비해 무지 큰 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로, 끊임없이 땅에서 무언가를 주질거리고 주변이 떠나갈 듯한 큰 울음소리는 수백의 수다쟁이 '당기'로 묘사되기도 한다.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유난히 불룩한 배는 귀여움을 느끼게 하지만 똥치 바보스런 느낌도 함께 불러일으킨다.

같은 종류인 말이 멋진 갈기와 미끈한 털을 자랑하는 반면 당나귀는 거친 회색 털만을 지녔을 뿐이다. 말이 귀족이라면 당나귀는 평민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당나귀는 서민들과

아이들에게 친근하다.

당나귀는 잘 따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고집을 피운다. 사람을 치면 아마 B형 혈액형에 가까운 걸 것이다. 그래서 '소금을 내르는 당나귀' 이야기처럼 피를 뿌리다 물 속에 넘어져 무거운 솜 집을 지게 되기도 한다.

비록 같은 '말과'지만 덩치가 중용하여 하여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처럼 서로 타기를 양보하다가 급기야 당나귀를 매고 가는 사대까지 벌어드는 것도 전혀 불가해 보인 않는다.

당나귀는 느리고 온순하여 옛부터 서민들의 교통수단이자 여행의 동반자이기도 했다.

우린 이 충성스런 가족의 가치를 너무 폄하하는 구석이 없지 않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방학중 조상 묘소 꼭 찾아보자

여름방학 중에 우리 가족은 무더운 날씨에도 조상 묘소에 다녀왔다. 묘소가 멀고 자녀들도 떨어져 있다보니 평소엔 가지 못하다 방학이라 쉬는 시간이 많으니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성묘에 낯설고 조상 숭배나 경조사상이 약해 꼭 직접 데리고 가서 누구의 묘소라는 설명도 하고 업적도 들려주었다.

성묘를 가다보면 주변 묘소들이 오랫동안 방치돼 묘소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래서 고향에 들르면 꼭 묘소에 참배해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며 옛 살이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 묘지는 상당히 높아 진밭을 뽐낼 리며 힘들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고지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아이들과 함께 준비해 간 술을 치고 과일과 과자를 놓고 향도 켜 뒤 아버지, 백부와 백모, 숙부, 형님의 산소에 절을 하고 살아생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는 준비해 간 냇으로 벌초를 했다.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아예 성묘를 보내지 않는다. 가뜩이나 약해져 가는 경로 효친 사상과 조상 숭배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나 두렵다.

우리를 낳아 길러준 조상없이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우정렬·광주시 서구 화정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等鼓

경제가 앞장 판만 지경에 이른 아프리카의 짐바브웨가 지난 1일 엄청난 폭의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절하)을 단행했다. 100억 짐바브웨달러(Z\$)를 1Z\$로 낮췄으니, 자신들의 화폐단위에서 '0'이 하루 아침에 무려 10개나 사라졌다.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물건을 사고 돌아서면 바로 값이 상승하고, 화폐가치는 그만큼의 속도로 떨어지는 국가다. 물가가 220만%까지 치솟고(비공식 추정 1천500만%) 1천억Z\$짜리 돈까지 찍어 냈으나 그걸로 식빵 한 봉지밖에 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내린 교육정책이었을 텐데,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세계경제사에는 그보다 더한 리디노미네이션도 있었다. 1993년 내전에 시달리고 있던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은 화폐개혁을 단행, 그들의 화폐에서 '0'을 무려 22개나 떼어냈다. 전쟁자금 조달을 위해 조폐청에서는 하루종일 돈을 찍어냈고 물가는 연간 6천초%까지 상

승했다는데 도대체 짐작을 해볼 수가 없다. 이를 두고 경제학자들은 초(hyper)인플레이션이라고 평가한다.

1차 대전 직후인 1924년 독일은 100조마르크짜리 화폐를 발행하는 등 삼인자인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프랑스는 1700년대 후반 대혁명 직후 아시아나 지폐까지 하락을 경험했고 미국은 1800년대 중반 남북전쟁 당시 지폐까지 하락을 맞보았다. 헝가리는 2차 대전 후 연간 물가상승률이 4천200%의 초인플레이션을 맞았다. 인플레이션은 전쟁 등 국가의 정치적 혼란과 맞물려 벌어졌다.

현재 인플레이션의 검은 그림자는 한국은 물론 인도, 중국 등 신

중국가를 비롯 유럽, 미국 등 전 세계를 뒤덮으며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국가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서민·중산층의 삶을 파멸하게 만든다.

정부는 강력한 통화긴축 등으로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싸워야 한다.

/기현호 경제부장 khh@kwangju.co.kr

리디노미네이션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가)11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경영지원국
<대표 FAX>	222-4918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경정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F A X>		222-8005	<F A X>
광고매점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F A X>		227-9500	<F A X>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F A X>		02-773-9331	<F A X>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